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11.18.(수) 09:00

인공지능 시대의 불확실성, 시민이 묻고 답하다!

- 시민 참여형 과학 대토론회 첫 시범운영, 향후 확대 -

국가과학기술 소통 핵심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은영)은 12월 12일(토) 오후 1시, 창의나래관 나래홀에서 최신 과학기술 이슈(인공지능 편)를 시민 참여를 통해 토론하고, 지식을 정립하는 **시민 참여형 과학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를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학기술 이슈를 전문가의 설명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강연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는 참여형 과학소통 프로그램으로 첫 시범 운영된다.

토론의 주제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인간 영역의 축소 대 확장'**이다. 인공지능 기반 휴머노이드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과 역할,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 예시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인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질까? ▲인공지능 친구나 연인이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있을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는 시민 패널의 찬반 토론과 전문가 의견 청취, 관람객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사 참여자들의 사전 찬반투표를 통해 인공지능 발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축소와 확장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 패널 6명이 각자의 관점과 근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

눈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과학기술적 관점을 더하고, 현장에 참여한 관람객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과학기술 이슈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열린 과학문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패널 6명과 일반 참여자 100명을 모집하며, 패널은 12월 3일(목), 일반 참여자는 12월 11일(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은영 관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사회와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지금, 과학관은 전시 공간을 넘어 국민이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소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와 같이 시민들이 과학기술 이슈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포스터) 시민 참여형 과학 대토론회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책임자	팀 장	안태범 (042-601-7914)
		담당자	연구사	김철희 (042-601-7988)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포스터〕 시민 참여형 과학 대토론회**

